

한라시론



김장한 전 광저우총영사·한국외교협회 이사

공상 영화 속에 나오는 판 세상 이야기 같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1년 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 갔다.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온 세상이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간의 경과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각자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미리 점검해 봐야겠다. 우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될 무렵, 발생 당사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심각성을

잃은 것 보다 얻은 것을 더 소중하게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고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요행에 많은 기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원 차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차단에 모범을 보인 나라들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로부터 입국이 기피되거나 자기비용으로 격리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외국인을 포함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국민의료보험에서 부담토록하면서 의료보험의 고갈 우려는 아랑곳없이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 된 듯했다. 다행히 늦게나마 백신이 보급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7월부터 대외활동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백신 접종을 망설였던 사람들이 백신접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통제 속에서 살고 있다. 어쩌면 기형적인 비상상황의 연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를 기회로 형성된 공권력의 불합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 불가피한 면도 있었겠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손상시킨 부문에서는 원상회복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모든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산적한 각종 재난과 엄청난 재정지출은 해결해야 할 우리 전체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어쩌면 정부, 기업, 가계에 걸쳐 부담은 정상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신뢰성 있는 조치로 불필요한 손실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정치일정을 보면 갈등이 사회 내부에 지속적으로 소용돌이 칠 여지가 많다. 국민각자는 이제 혼돈의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사회구성원간의 상호 일상적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 외로운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도 많다. 아울러 각 개인은 스스로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젊은 꿈나무들이 다시금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평범한 것,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과 배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잃은 것이 많을 지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소득이 적다고 할 수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얻은 것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상상의 시대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사설

특별자치도 15년, 성과 '미미' 과제 '산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이했지만 일궈놓은 성과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인식, 분야별 성과, 권한이양 등 제 분야에 대한 도민 반응이 예상보다 낮거나 부정적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특별자치도라는 차별성·선도성도 없어지는 만큼 '특별자치도'를 원점에서 새로 짜는 계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가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조사결과 도민 10명중 4명은 특별자치도 명칭과 의미를 모른다고 할 만큼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경제발전 기여와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도 공·부정 비슷한 답변이었고,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가 한참 높게 나왔다.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제고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충분한 권한이양 여부 항목도

부정 답변이 우세했다. 특별자치도가 이룬 성과로 관광산업(43.5%), 영어교육도시 등 교육산업(34%), 사회간접서비스(24.8%)를 꼽았지만 의료 환경 투자유치 첨단산업 1차산업육성 등에선 10%대나 그 이하에 그쳤다. 특별자치도로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특별자치도가 현재까지도 도민 사회에 제대로 '안착' 못했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1차산업과 첨단산업 등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디딤돌'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새 방향 모색과 새 틀을 짤 때다. 내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차별성'마저 잃어버린 현실을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 도민사회도 2006년 화려한 출발이 '웅두사미'로 흐르지 않도록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특별자치도 성과를 내는데 힘의 합쳐야 한다.

농가에 생색내는 제도로 그쳐선 안된다

양배추 가격이 폭락하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됐다. 이 제도는 생산자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매년 경영비와 유통비를 파악해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평균 경락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배추 농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양배추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65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수급조절 품목에서 제외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양배추 생산량이 전년보다 15.4% 증가한 9만t으로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제주양배추를 중심으로 분산출하 등 선제적인 수급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상 유례없는 한파로 양배추

물량이 2월 이후 집중 출하되고, 전남지역 양배추와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4월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결국 제주도가 양배추에 대해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했다. 지원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계에 가입하고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이다. 6월말까지 농가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격안정관리제 발령으로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시장격리(산지폐기) 조치로 끝났지만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어서다. 양배추에는 처음 적용한 사례여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농가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지는 미지수다. 폭락한 가격의 차액을 100% 보전하는 것도 아니어서 농가에 생색만 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기준가격부터 대폭 높여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국 25시

안센 3일



김도영 편집부기자 doyoung@ihalla.com

지난 14일 오후 1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까지 4시간이 남았다. 아침부터 약간의 두통이 있다. 접종을 마친 지인들의 "아프다", "괜찮다" 분분한 의견에 혼란스럽다. 오후 5시, 병원에 도착해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안내에 따라 '안센' 백신 예진표를 작성했다. 5시 10분,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다시 한번 '안센' 백신 접종자임을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했다. 오늘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약간의 두통이 있다고 답했다. 의사는 청진기를 내 등에 대고 크게 숨을 쉬어보라고 했고, 목 안쪽에 불빛을 비춰 확인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접종하시죠."

5시 14분, 접종이 끝났다. 주사를 맞은 팔이 빠근했다. 의사는 15분간 대기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했다. 5시 19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가 휴대폰에 전송됐고 5시 30분쯤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병원을 나섰다. 7시 30분, 접종 2시간이 지나 몸에 힘이 빠지고 나른한 기분을 느꼈다. 6월 15일 오후 1시, 밤사이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미열과 약간의 두통,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였다. 5시, 휴식을 취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두통이 남아있어 아세트아미노펜 1회분의 약을 먹었다. 6월 16일 오전 10시, 밤사이 약한 오한이 있었다. 몸은 여전히 무겁다. 하루만 더 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달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주변 사례들을 종합하면 강도의 세기가 다를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면역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작용이라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겪어보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다만 백신 접종 휴가는 꼭 필요하다.

뉴스-in

원희룡 지사 기자실 탈출작전

간부진 호위 속 황급히 퇴장

○...대권 행보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 발로 기자실에 와 놓고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빈축. 원 지사는 16일 제주시청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기자실을 찾았지만, 기자들과 '약수'만 하고 5분 만에 자리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연출. 당시 기자들은 "5분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지만, 원 지사는 "5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간부진들의 호위 하에 황급히 기자실을 탈출. 송은범기자

백신 접종률 29.4% 기록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 16일 기준 1차 백신 접종자는 16만9273명으로 이는 도내 인구(67만4635명)대비 29.4%, 접종 대상 목표 인구(40만2580명) 대비 42%의 달성률을 기록.

제주도는 앞으로 백신수급이 원활해 질 경우 40대 이하에 대해선 연령대별 접종 시기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 진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 고대모기자

일자막 SNS 홍보영상 주목

○...서귀포시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웰니스관광, 이색 마을사업, 맛집 등을 주제로 월 1편씩 일본어로 제작해 업로드 할 계획. 이를 위해 시는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자매도시(가라쓰시·가사마시·기코카와시)의 시청 전자 게시판에 '서귀포시 소식'란을 개설해 운영. 시 관계자는 "1탄으로 해안드라이브 코스와 수국 핫플레이스를 일본어 자막으로 재편집해 16일 업로드했다"며 "소셜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자매도시 시민들에게 서귀포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힌. 백귀탁기자

부고 윤문유(前 국제청 근무) 어머니 김해 김씨 원순(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16일 0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6월 17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18일(금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윤문유 며느리 우연배
영유 양길순
상유 진승희
성유
딸 윤영래 사 위 고은식
영옥 강지훈
※ 연락처 : 윤문유 010-3219-7780
윤영유 010-6798-0334
윤상유 010-8660-9234

부고 장창훈 아버지 인동장공 영태(예비역 육군 중령·前 진주교대 초대 학군단장·향년 70세)께서 서기 2021년 6월 16일 11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6월 17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6월 18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장창훈
딸 장혜경
사 위 부문태
친족대표 장철후
※ 연락처 : 장창훈 010-2725-6382
장혜경 010-3169-4080
부문태 010-7793-0364
장철후 010-3697-295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